

借字表記 資料에 나타난 ‘良’字의 用法과 讀法

스카이 요시노리(須賀井 義教)*

I. 序 論

본고는 향가, 이두, 구결 등 차자표기 자료에 나타난 ‘良’자의 용법과 독법을 정리하여 기존 연구들의 문제점을 검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良’자는 『三國史記』·『三國遺事』의 지명표기 등에 83번이나 쓰였으며(宋基中 2004:23, 한자어 표기도 포함) 또 향가 자료에서도 모두 44개가 나타나 차자표기 자료에서 높은 빈도로 사용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다. 향가에서 그 용례들을 분석해 보면 대부분이 부사형어미로 쓰이거나 처격조사 ‘良中’의 일부로 쓰이고 있다. 그 이외의 용법들도 많이 나타나므로 ‘良’자가 매우 다양하게 쓰였다고 할 수 있다.

‘良’자는 그 용법뿐만 아니라 讀法도 다양하다. 종래 향가 연구에서 ‘라’로 읽히거나 ‘랑’, ‘야’로 읽히는 등 여러가지로 읽혀 왔다. 또한 ‘라→리’, ‘아→어’ 등 母音調和에 따라 變異音을 보이기도 하므로 그 양상은 매우 복잡하다. 이두에서도 ‘여, 아, 라, 에, 야’ 등 다양한 독법을 보인다(中樞院 1937). 본고에서는 ‘良’자의 독음이 보이는 양상도 살펴보고 그 다양한 독음을 좀더 간략하게 정리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고자 한다.

* 서울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日本 東京外國語大學 博士後期課程

II. 固有名 表記에 쓰인 ‘良’字

『三國史記』, 『三國遺事』에 나타난 ‘良’자들은 거의 대부분 音假字¹⁾로 사용되어 [라]를 나타낸다.²⁾ ‘良’자는 향가나 다른 차자표기 자료에서도 주로 음독되어 쓰이는 것이 특징이다.³⁾ 또한 그 분포를 보면 ‘良’자가 語頭に 쓰이는 경우가 별로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⁴⁾

이것은 ‘良’자의 독음을 검토할 때 문제가 될 것이다. 어두에 子音群이나 流音이 오는 것을 피한다(李基文 1972/1998:24)는 한국어의 Altai語적인 성격을 고려할 때, ‘良’자가 오직 [라]音만을 담당하는 문자였으면 ‘良’자가 어두에 안 나타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런데 향가나 이두에서는 [라]나 [아]로 읽히고, 또 구결에서는 완전히 [아]로만 읽힌다는 것을 보면 원래는 [라]만을 담당하였다가 후세에 ‘르’이 탈락하거나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라], [아] 두 가지 독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만약 『三國史記』, 『三國遺事』 시기에 [아]까지 나타냈다면 어두에서도 ‘良’자가 쓰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어 자료인 『萬葉集』에서도 ‘良’자가 사용되었는데 그것이 [ra]를 나타내는 것이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李鍾徹(1983:34)에서 『萬葉集』 卷十四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빈도는 70회이며 [ra]를 나타낸 또 하나의 한자인 ‘羅’자의 빈도(10회)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활발하게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
- 1) 여기서 말하는 音假字란 南豐鉉(1986/2000:16)에 따른 것이다. 이하 音讀字, 訓讀字, 訓假字 등의 용어도 이와 같다.
 - 2) 다음 지명 표기의 용례에서 그 양상을 잘 알 수 있다. ‘良’과 ‘羅’의 대응으로 미루어 그 독음을 [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ex. 何瑟羅州(一云 河西良 一云 河西) 〈史記 37.6a〉
 - 3) ‘良’자를 혼독하는 견해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 4) 前置字로 쓰이는 것도 있으나 주로 한자어 표기로 쓰인 것이다. 後置字는 대부분 고유어의 음독표기자로 보인다(宋基中 2004:93-94). 또한 南豐鉉(1981:218)에서도 音假字로서 [아]음을 나타내는 ‘阿’가 어두, 어중, 어말에 두루 쓰였는 데 반해 訓假字로서 같은 [아]를 나타내는 ‘良’은 어중이나 어말에만 쓰였다고 지적한 바 있다.

Ⅲ. ‘良’字的 用法

이하 ‘良’자의 용법을 각 형태별로 정리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대상 자료 중 향가에서의 용법을 바탕으로 하여 각각의 용법에 대해 자료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良’자는 향가에서 44번 사용되었다. 모든 용례가 검토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용법이 韓在永(1995)에 정리된 바가 있다. 여기서 그 용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韓在永(1995)에서 제시된 ‘良’자의 용법(〔〕안은 그 독음)

- ① 부사형어미 ‘-아/어 [아/어]
- ② 부사파생접미사 또는 부사화접미사 [랑/령]
- ③ 처격표지 [어]
- ④ 호격조사 [어]
- ⑤ 종결어미 [래]
- ⑥ 말음첨기 [래]
- ⑦ 선어말 위치에 쓰인 것
- ⑧ 특수조사 [랑]
- ⑨ 의도를 나타내는 어미 ‘-러 [러]

위에 제시된 용법 이외에 梁柱東(1965:765)에서 목적격 조사로 해독한 것이 있지만⁵⁾ 이는 처격조사로 해석하는 견해가 더 타당한 듯하므로 여기서 제외될 수 있다.

위의 용법 중 가장 많이 쓰인 것이 ①부사형어미이다.⁶⁾ 그 다음으로 ③ 처격조사(의 일부)로 쓰인 것이 많은 편이다. 용례가 적고 특수한 용법이라

5) 《隨意功德歌》의 구절 “緣起叱理良 尋只見根”을 “緣起스理러 차지보곤”으로 해석하였다.

6) 사실 모든 용례를 통틀어서 집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많다’는 표현도 정확하지는 않다. 해독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여러 선행연구의 견해와 본인의 의견을 종합해서 ‘(부사형어미로 볼 만한 용례가) 가장 많다’는 것이다.

고 할 만한 것이 ②, ⑥, ⑧, ⑨인데 각각 용례가 1, 2개밖에 안 보인다.

1. 副詞形語尾로서의 用法

1) 鄉歌에서의 用法

먼저 향가에서의 용례를 검토하고자 한다.

- (2) ㄱ. 今日此矣散花唱良 〈兜率歌〉
 ㄴ. 道修良待是古如 〈祭亡妹歌〉
- (3) ㄱ. 吾焉頓叱進良只 〈請轉法輪歌〉
 ㄴ. 手乙寶非鳴良尙 〈請佛住世歌〉

(2, 3) 모두 부사형어미 '-아/어'를 나타낸 것으로 추정된다. (2)는 '블러', '닷가' 정도로 '-아/어'만이 쓰인 용례이다. 이에 대해 (3)은 '나삭', '울어곰'과 같이 연결어미 '-악/억', '-아곰/어곰'의 일부로 쓰인 것이다. 이들 용례에서 볼 때 '良'자의 독음은 [아, 에]를 상정할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2)와 같이 '良'자가 단독으로 쓰이는 용례가 『三國遺事』 소재 향가에 많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均如傳』 소재 향가에는 오히려 (3)처럼 어미의 일부로 쓰인 용례들이 많이 확인된다(韓在永 1995:91). 특히 '-良只'의 용례가 普賢十願歌에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분포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지금으로서는 그 방법이 없다. 전체적인 용례가 적어서 우연히 나타난 현상인지 향가의 時代性이 반영된 것인지⁷⁾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해독이 확정되지 않은 것도 있으므로 여기서는 일단 이러한 현상이 보인다는 것을 지적하는 데 그친다.

부사형어미와 관련하여 韓在永(1995)에서 제시된 향가의 용법 중, ②부사 파생접미사 또는 부사화접미사로서의 용법에 대해 잠깐 검토하기로 한다. 다음 용례를 보자.

7) 여기서는 南豐鉉(2003)을 따라 일단 『三國遺事』 소재 향가가 『均如傳』 소재 향가보다 시대적으로 앞선 것으로 본다.

- (4) ㄱ. 來際永良造物捨齊 〈懺悔業障歌〉
 ㄴ. 此良夫作沙毛叱等耶 〈禮敬諸佛歌〉

이들 용례는 解讀者마다 그 견해에 많은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다. (4ㄱ)에 대해 오구래(小倉進平)(1929:94)는 ‘良’을 [예]로 읽고 ‘길에(〈길계〉)와 같이 부사형을 만드는 것으로 보았다. 여기서 15세기 한국어에서처럼 ‘ㄹ’말음 뒤에서 ‘ㄱ’이 약화되는 규칙을 적용한 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현상이 향가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梁柱東(1965:760~761)에서는 ‘기리로 읽고 ‘길’의 부사형으로 해석하였다. ‘良’자를 “頭音에 依하여 [리에] 略音借되었다.”라고 하였으나 그 독음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金完鑣(1980:178)에서 종래의 견해와 전혀 다른 ‘오랑’이란 해독이 제시되었다. 譯詩에서 볼 때 부사에 해당되고, ‘永’을 혼독하며 또 ‘良’의 독음에 맞게 해석한 것인데 이 해독은 濟州道 방언의 ‘하양(밭이)을 근거로 하고 있다. 또한 兪昌均(1994)에서는 부사형어미 ‘-아/어’로 보고 ‘기라’로 읽었다.

(4ㄴ)도 여러가지로 해석되었다. 즉 ‘이러히/이러케(此良夫)’(오구래(小倉進平) 1929), 처격조사(梁柱東 1965), ‘이렁(부사)’(金完鑣 1980), ‘라(서술형어미)’(兪昌均 1994) 등이 있다.

둘 다 부사로 볼 만한 구절인데 韓在永(1995:92)는 이들 용례에 대해 각각 ‘오래’, ‘이에’로 읽을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시하였으나 (4)의 해석 자체에 대한 판단은 유보하였다. 이 견해는 ‘良’의 독음으로 [예, 예]를 더하려고 한 것인데 만약 그렇다면 하더라도 ‘오래’의 ‘에’와 ‘이에’의 ‘에’가 가지는 기본적인 성격에도 차이가 있다는 난점이 함께 제시되고 있다.

본고에서 (4)의 용례에 대해 확실한 해답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4ㄱ)에 대해서는 부사형어미 ‘-아/어’로 읽고 ‘오라’ 정도로 해석하면 어떨까 싶다. 이두에서의 용례(후술)처럼 용언 어간에 ‘-아/어’가 통합되어 부사로 어휘화한 것들과 마찬가지로 용언 어간 ‘오라-’에 ‘-아/어’가 통합되어 그것이 부사로 쓰인 것으로 보는 것이다. 15세기 한국어에서도 ‘다(〈다으-〉)나 ‘모다(〈뭇-〉)처럼 용언 활용형이 부사로 어휘화한 것들이 여럿 확인된다. 이렇게

해석할 때, ‘良’자의 독법을 제한할 수 있으며 또 부사과생접미사로서의 용법을 없앨 수가 있어 체계가 복잡해지는 것을 피할 수 있다.

(4-)에 대해서는 워낙 특이한 용례이라 본고에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지 못하였다.⁸⁾

2) 吏讀에서의 用法

이두에서 연결어미 ‘아/어’로 쓰인 용례는 고려시대부터 나타난다. 그런데 李丞宰(1992:186)에서도 지적되었듯이 그 사용 범위는 아주 좁아 ‘餘良(혹은 余良), 敎是良’ 등에 국한된다. ‘用良’이 많이 쓰였다고 하는데 뒤 시기에는 ‘-을 말미암아’, ‘-을 따라서’ 정도의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에 쓰였다(李丞宰 1992:141).

徐鍾學(1995:164)에서 ‘良’을 부사과생접사로 간주하여 ‘用良(뻬)’, ‘更良(가시야, 느외야)’ 등을 파생부사로 취급하였다. 李丞宰(1992:155)에서도 ‘更良’을 파생부사로 보았으나 오히려 ‘良’을 그대로 연결어미로 보고 용언 활용형인 ‘뻬, 가시야’ 등이 어휘화하여 부사로 쓰이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다. 고려시대 이두나 15세기 한글 자료에서 ‘가시’와 같은 용언어간을 설정할 수 있을지 문제가 되겠지만, 따로 부사과생접미사를 설정하는 것보다 체계가 단순해진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을 것이다.

향가 자료에서 많이 확인되던 ‘良’과 다른 요소와의 연결은 이두에서도 많이 나타남을 언급해 두고자 한다. 고려시대 이두의 경우 ‘良置’, ‘良尔’, ‘良結’, ‘良只’가 확인된다(李丞宰 1992:198~200). 그 중 ‘良結’과 ‘良置’는 향가에서 사용되지 않았다.

3) 口訣에서의 用法

부사형어미로서의 쓰임은 구결 자료와 이두 자료에서 비슷한 분포 양상이 보인다. 고려시대 석독구결에서 ‘良’의 略體字인 ‘ㄱ’이 부사형어미로 쓰인 용례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8) 李崇寧(1955/1982:146)에서 ‘此良’을 ‘이러’로 본 바가 있어 참고가 된다.

- (5) ㄱ. 十二大衆7 皆7 來3 ㄴ 集會3 九劫蓮花座3 十 坐3 白3 ㄴ ㄴ
 <구인02:07~09>
 ㄴ. 大寂室三昧3 十 入3 ㄴ 緣3 思3 ㄴ ㄴ <구인02:10~12>
 ㄴ. 當願衆生 衆7 聚7 法3 捨3 ㄴ ㄴ 一切智3 成3 ㄴ ㄴ ㄴ <화엄
 03:04>

(5ㄱ)은 어미 '-아/어'로서 단독으로 쓰인 용례, (5ㄴ)은 '- 3 ㄴ(아꿈)', (5ㄴ)은 '- 3 ㄴ(악)'의 일부로 쓰인 용례이다. 각각 '集會하여, 因緣을 생각하여서, 모든 法을 버려서'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이두에 보이는 '良置'는 그대로 구결자로 옮기면 '* 3 4(이두)'가 될 터이지만 석독구결 자료에는 안 나타난다.

석독구결 자료에서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구결자가 여러가지로 읽힐 경우가 없기 때문에 '3'의 독음은 [아]만 설정하면 될 것이다.

16세기 음독구결 자료에서는 부사형어미로 쓰인 '良'자의 용례가 거의 없다. 한문 구결 뒤에 달리는 구결은 용언 '爲(ㅎ-)' 혹은 계사이므로 '良'으로 '-아/어'를 나타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爲'에 통합되는 부사형어미로서 '- ㄴ(아)', 계사에 통합되는 어미로서 '- ㄴ(라)'가 사용된다(安秉禧 1977:88).

여기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良'이 단독으로 부사형어미(연결어미)로 활발하게 쓰인 것은 향가와 구결 자료에서였다고 볼 수 있다. 보조사로 보이는 '- ㄴ'이나 '- ㄴ'이 '良'에 통합된 어미들은 향가, 이두, 구결에 두루 쓰였다. 석독구결에서 활발하게 쓰였던 '3'는 음독구결에서는 거의 안 쓰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良'자의 독음은 [아, 어]로 설정할 수 있다.

2. 處格助詞로서의 用法

1) 鄉歌에서의 用法

향가 자료에서는 '良'이 처격조사로 쓰인 용례가 보이는데 다음과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 (6) ㄱ. 東京明期月良 <處容歌>

- ㄴ. 手良每如法叱供乙留 〈廣修供養歌〉
 (7) ㄱ. 千手觀音叱前良中 〈禱千手觀音歌〉
 ㄴ. 南無佛也白孫舌良衣 〈稱讚如來歌〉

(6)과 같이 ‘良’이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뿐 아니라 (7)처럼 ‘良中, 良衣’ 등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그 독음에 대해서는 각 연구자마다 여러가지로 차이가 있는 듯하다. 예를 들어서 15세기 한국어와 비슷하게 선행하는 명사의 모음에 따라 ‘애/에/예’ 사이의 교체를 허용하는 견해(오구라[小倉進平] 1929), 또한 자음 아래에서는 ‘아’로, 모음 아래에서는 ‘라’로 읽도록 ‘ㄹ’ 탈락 규칙을 가정한 견해(金完鎭 1980:14) 등이 있다.

그런데 향가에 나타난 용례를 보는 한에서는 15세기 한국어와 같은 ‘애/에’의 존재는 확인되지 않는다. 13세기와 15세기에 걸친 기간에 ‘애/에’가 발달한 것으로 보는 南豐鉉(1977/1999:260)의 견해를 받아들인다면 (6, 7)에 나타난 ‘良’자의 독음은 [아] 정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다. 향가에 보이는 ‘阿希⁹⁾’와 ‘良中’을 同音異字 表記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南豐鉉 1977/1999:258).

2) 吏讀에서의 用法

향가에서와 달리 이두 자료에서는 ‘良’이 단독으로 처격조사로 쓰이는 일이 거의 없다.¹⁰⁾ 이두에서 ‘良’을 포함한 처격조사로서는 ‘良中’이 존재한다. 고려시대에 쓰이기 시작하여 조선시대 말기까지 계속 사용되었다(후지모토[藤本幸夫] 1986:407). 그 독음은 18세기말의 이두 학습서인 『儒胥必知』 등에서 ‘아히’로 읽혔다(南豐鉉 1977/1999:251)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 ‘良中’에 대해 후지모토[藤本幸夫](1986:409)에서는 ‘中’을 新羅, 高句麗語에서 처격으로 사용된 中國 기원의 처격조사로 보고,¹¹⁾ 그것과 新羅語의

9) “法界惡之叱佛會阿希”(〈請轉法輪歌〉)와 같은 용례가 있다.

10) 『大明律直解』에 와서 비로소 4개의 용례가 보인다. 朴盛鍾(1996:186) 참조.

11) 후지모토[藤本幸夫](1986:404)에서 이 ‘中’에 대해 중국 漢나라에서 쓰였던 ‘中’의 용법이 한반도에 유입된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이러한 주장은 ‘良中’을 기원적

처격조사 '良'과 重用된 것으로 보았다. 한편 김승곤(1984:31)처럼 '良'과 '中'을 분리하지 않고 '良中'을 하나의 단어(처격조사 '어히')로 보려고 하는 견해도 있다. 원래의 처격 '어히'를 나타내는 데 의미가 가까운 '中'자로 표기하려고 하였으나 음절에 생기는 차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良'자를 보충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견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良'이 '어'를 나타냈다는 것이 전제된다. '라'도 아니고 '야'도 아닌 '어'를 표기하기 위해 '良'이 쓰였다고 생각하기가 약간 어려운 것 같다. 여기서는 일단 '良'의 독음을 전통적으로 계승된 [어]로 보고자 한다.

3) 口訣에서의 用法

이두에서는 '良中'이 조선시대 말기까지 사용되었는 데 반해 구결 자료에서 처격조사로서의 '良'은 그리 오래 쓰이지 않았다. 고려시대 석독구결 자료에서는 '}'가 단독으로는 쓰이지 않고, '}'+(아귀)'로 처격을 표시한다.

- (8) ㄱ. 量 無七 菩薩 : 比丘 : 八部 : 노승七 大衆 有 나 하 나 下 各 各
 → 亦 寶蓮花 } + 坐 노 나 分 <구인02:03-04>
 ㄴ. 當願衆生 {於}聖地 } + 入 노 亦 永 去 穢 欲 乙 除 乙 立 <화엄02:24>

(8)의 용례에서 처격 자리에 '}'+'가 쓰여 있음을 알 수 있다. (8ㄱ)은 '寶蓮花에 앉으시며', (8ㄴ)은 '聖地에 들어가서' 정도로 해석된다.

또 '}'가 처격으로 쓰인 것으로 '}'七(앗, <良叱>)이 있다. 이것은 15세기 한국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처격과 속격 '시'과의 복합이다. 석독구결 자료에서 '}'와 '+'가 분리되어 따로 쓰이는 일이 없는 반면 속격과의 결합형태는 반드시 '}'七'으로 나타난다(南豐鉉 1977/1999:260).

- (9) 彼 他方佛國 七 中 } 七 南方 } 七 法才菩薩 七 <구인03:06-09>

(9)는 '他方佛國 중에 있는 南方에 있는 法才菩薩은' 정도의 뜻을 나타낸

으로 다른 두 개의 처격조사의 복합으로 본 南豐鉉(1977/1999:257)의 견해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다. 향가에서 이 표기가 ‘阿叱’로 나타난다(南豐鉉 1977/1999:261)는 것은 ‘良’의 독음을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될 듯하다. ‘良’과 ‘阿’를 同音異字 표기로 본다면 이것을 ‘아’로 읽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석독구결에서는 단독으로 쓰이지 않았던 ‘ㄱ’이 조선시대 초기의 음독구결에서는 처격을 나타내는 것으로 주로 사용되었다. 다음은 祇林寺本 『楞嚴經』의 용례이다(韓相花 1994:63~64에서 재인용).

- (10) ㄱ. 수미 ㄱ 開悟ノㄱ ㄱ (ノ ㄱ) 如失乳兒ㄱ (二 1a:5)
 ㄴ. 如阿難體 ㄱ 不容阿難印 ㄱ ㄱ ㄱ (二 46b:1)

(10ㄱ)은 15세기 한국어에서는 ‘-애’로 상정되는 용례이고, (10ㄴ)은 ‘-예’로 상정되는 용례이다.

16세기 이후의 구결 자료에는 ‘良’자가 처격으로 쓰인 용례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유일하게 위의 ‘良叱’이 『地藏菩薩本願經』에 나타난다(安兼禧 1977:59에서 재인용).

- (11) 無間良叱此日罪人悉得受樂爲也 (地藏上 9b)

결국 ‘良’자가 단독으로 처격조사에 쓰이는 것은 향가, 이두 자료의 극히 일부, 그리고 조선시대 초기의 음독구결에 한정된다. 한편 ‘良中’의 경우는 향가, 이두, 고려시대 석독구결에서 쓰였다.

3. 呼格助詞로서의 用法

1) 鄉歌에서의 用法

‘良’자를 [어]로 읽고 호격조사로 쓰는 용법이 있다. 향가에서의 용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2) ㄱ. 哀反多矣徒良 (風謠)
 ㄴ. 巴寶白乎隱花良汝隱 (兜率歌)

ㄷ. 道戶迷反群良哀呂舌 〈請佛住世歌〉

이들 용례에서는 ‘良’을 [어]로 읽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하다. 15세기 한국어처럼 尊稱(‘-하’), 非尊稱(‘-아’)의 차이(시부[志部昭平] 1990:165)가 있었는지는 용례가 없어서 알 수가 없다.

향가에서는 ‘良’ 이외에도 호격조사로 ‘也’가 쓰였다.

이두 자료는 주로 記錄體의 문장이고 대화 장면이 거의 없으므로 호격조사로서의 쓰임은 나타나지 않는다.

2) 口訣에서의 用法

석독구결 자료에서는 ‘ㄱ(아)’가 호격조사로 활발하게 쓰였다.

(13) 善男子 ㄱ 〈구인11:20〉, 佛子 ㄱ 〈화소01:03〉

(14) ㄱ. 大王 ㅏ 〈화소10:17〉

ㄴ. 佛子 ㄱ 〈화엄02:10〉

(13)은 ‘ㄱ’가 호격조사로 쓰인 예이다. (14)도 호격조사의 용례인데 이승재(1998:50)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석독구결 자료에서는 ‘-ㅏ(하), -ㄴ(여), -ㄱ(아)’가 각각 ‘존대, 평대, 하대’를 담당하는 3등급 체계였던 것 같다. 또한 ‘-ㄴ’은 호격의 기능만을 담당한 것이 아니라 감탄의 기능도 동시에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까지 호격조사로서의 용법을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용법에서는 ‘良’을 [어]로 읽는 데 별 문제가 없는 듯하다. 다음으로 종결어미로서의 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4. 終結語尾로서의 用法

1) 鄉歌에서의 用法

향가에서 ‘良’이 종결어미로 쓰였다고 할 만한 용례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 (15) ㄱ. 彌勒座主陪立羅良 〈兜率歌〉
 ㄴ. 法界毛叱所只至去良 〈禮敬諸佛歌〉
 ㄷ. 一念惡中涌出去良 〈稱讚如來歌〉
- (16) 迷火隱乙根中沙音賜焉逸良 〈恒順衆生歌〉
- (17) ㄱ. 法性叱宅阿叱寶良 〈普皆廻向歌〉
 ㄴ. 阿邪也 吾良遺知支賜尸等焉 〈禱千手觀音歌〉

위의 예들은 종결어미로 ‘良’이 쓰인 용례들이다. (15, 16)은 종결어미 ‘-라’를 나타내는 용례이고, (17)은 종결어미가 계사 뒤에 나타난 용례이다. 먼저 (15)는 모두 명령법 종결어미로 해석될 수 있다(‘별라, 니르거라, 솟나 거라’). (16)는 종결어미의 일부(‘사마시니라’)로 사용된 것이다. 이들 용례에서는 ‘良’의 독음을 [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17)은 모두 [명사(+계사)+어말어미 ‘良’]과 같은 구조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17ㄱ)은 ‘寶良’, (17ㄴ)은 ‘내라고’ 정도로 해석되어 있는데, 문제는 종결어미 ‘-다’가 계사 뒤에서 ‘-라’로 교체되는 현상을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향가에서는 확실하지 않으나 석독구결 자료에서는 ‘居ㄴ=ㄱ ㄴ ㅁ(居 ㅎ- + -시- + -ㄴ + 아- + -라<다>)(구인11:07)와 같이 계사 뒤에서 ‘-다’ -라’의 교체가 확인되므로 일단 (17ㄱ)의 경우는 [라]로 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17ㄴ)에서 “吾良遺”를 ‘내라고’로 읽을 때, ‘-라고’와 같은 소위 인용조사 자체를 인정할 수가 있는지 문제가 될 것이다. 인용조사 ‘-고’는 근대한국어 후대에 와서야 사용하게 된 것이기 때문이다(홍중선 1997:168).¹²⁾ 여기서의 일단 (17ㄴ)에 대한 해석을 유보하기로 하고, 종결어미로 쓰인 ‘良’의 독음을 [라]로 보고자 한다.

2) 吏讀에서의 用法

이두에서도 ‘良’이 종결어미로 쓰였는데 이것은 명령법 어미로서의 용법이다(오구대小倉進平 1929:333). 『吏讀集成』에서 ‘爲良教齊’를 ‘하아라이산제’

12) 金完鑑(1980:106)에서 원문의 ‘遺’를 ‘遣’의 誤字로 간주하였다는 것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다. 金完鑑(1980)에서는 간혹 있는 글자들을 誤字로 보아 수정을 하는 경우가 보이는데 이러한 태도는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로 읽고 “하라고 하셨다” 정도로 해석하였는데 이러한 것도 명령법의 종결어미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용례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韓相仁 1998: 136에서 재인용, 律文은 생략).

- (18) 永爲遵守爲良 爲教 事是去 有良尔 百司官員等亦 須只 熟讀爲 / 길이 遵守하라 하신 일이므로 百司官員들이 반드시 熟讀하여 <直解 3:1b>

(18)은 『大明律直解』의 용례이다. ‘爲良’ 뒤에 있는 ‘爲教’는 용언어간 ‘ㅎ’에 주체존대의 접미사 ‘-시’가 통합된 것이므로 앞 ‘爲良’을 ‘하라’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3) 口訣에서의 用法

석독구결 자료에서 ‘ㄱ’는 ‘아(혹은 어)’를 나타내므로 명령법의 종결어미로 쓰이는 경우가 없다.¹³⁾ 그런데 ‘ㄱ’도 종결어미로 쓰일 수는 있다. 향가나 이두와 달리 의문법 종결어미로 쓰이는 경우가 그것이다.

- (19) 第一義七 中ㄱ十 世諦 有七 | ㄱ로소ㄱ 不矢 ㄱ로 ㄱ 七 ㄱ <구인14:18~20>

‘ㄱ로소ㄱ’(ㅎ고오리아)의 ‘ㄱ’는 판정 의문문에 쓰인 것으로 중세한국어의 어미 ‘-가’로 볼 수 있다. 모음 ‘ㅣ’ 뒤에서 ㄱ약화 현상이 일어나서 ‘아’로 나타난 것이다(이승재 1998:66). 구결 자료에서 ‘-가’가 나타난 적은 없으나 (19)에서 뒤의 문맥으로 봐서 판정 의문문에 쓰이는 ‘-가’를 상정할 수 있다.

5. 末音添記로서의 用法

향가에서 ‘良’을 말음첨기로 사용한 것으로 다음 용례가 있다.

13) 명령법 어미 ‘-(가)라’ 자체는 석독구결에 전혀 나타나지 않으나 음독구결 자료에 서는 많이 나타난다고 한다. 박진호(1998:129) 참조.

(20) 望良古 〈彗星歌〉

이것은 彗星歌에 두 번 보이는데 종래의 연구에서는 ‘良’을 [라]로 읽고 ‘바라고’로 해석하였다. 그런데 南豐鉉(1977/1999:252)에서는 怨歌에 보이는 “望阿乃(바라나)”를 근거로 하여 ‘良’과 ‘阿’가 同音異字 표기의 관계에 있고 ‘良’자가 [라]를 표기한 것이 아니라 [아]를 표기한 것이라고 지적한 바가 있다. [아]의 독음은 光州版 『千字文』에 나타난 訓 ‘알’에 기초한 것이다(徐在克 1975:14도 참조).

여기서 (20)의 ‘良’을 [라]로 읽은 것인지 [아]로 읽은 것인지 문제가 되는데 본고의 입장에서 볼 때 [라]든지 [아]든지 간에 사실 큰 차이는 없다. 여기까지의 논의에서 ‘良’의 독음으로서 [라]와 [아] 두 가지를 상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말음첨기로 쓰인 ‘良’의 용례가 (20)밖에 없어 둘 중 하나로 결정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20)에 나타난 ‘良’을 [라]로 읽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본다. (20)의 경우, 金完鎭(1980:17)에서 주장한 “訓主音從”의 원칙에 따르면 ‘望’은 훈독되어야 하고 또 ‘良’은 음독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南豐鉉(1977/1999)에서 제시된 독음 [아]는 ‘良’을 훈독한 것이므로 “訓主音從”의 원칙에 어긋난다. 그렇다면 (20)과 같은 경우, ‘良’의 음독으로 생각되는 [라]가 더 적당하지 않을까 싶다.

이두에서는 말음첨기로 사용된 경우가 안 보인다.

석독구결 자료에서 ‘ㄱ’가 말음첨기로 사용되기는 하나 향가와는 독음이 다르다. 다음 용례들은 모음 ‘ㅏ’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21) 見ろ尸 所ㄴ 無七ニ分 〈구인15:16~18〉

위의 용례에서 ‘ㄴ’는 문법형태가 아니라 의존명사 ‘바’의 모음 ‘ㅏ’를 나타내는 데 이용되었다. 향가와는 독음이 다르지만 말음첨기로 사용되었다는 공통점을 보인다.

6. 先語末 位置에서의 用法

1) 鄉歌에서의 用法

먼저 다음 용례들을 보기로 한다.

- (22) ㄱ. 此脞喰惡支治良羅 <安民歌>
 ㄴ. 脚烏伊四是良羅 <處容歌>
 ㄷ. 心未繫叱 脞逐內良齊 <讚耆婆郎歌>
- (23) 奪叱良乙何如爲理古 <處容歌>

이들 용례에서 보이듯이 ‘良’이 선어말어미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22)의 ‘良’을 [리로 읽은 경우가 많으나 韓在永(1995:95)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아, 에 정도로 읽고 感嘆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다. 다른 용법에서 보이는 독음 [래에 대해 그것과 짝이 되는 [레가 있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으나 여기서 ‘良’을 [아, 에 정도로 읽고 독음의 체계가 복잡해지는 것을 피하려고 한다.

(23)은 중세한국어의 ‘아/어’에 해당되는 것이다. 여기서는 ‘아샤늘’ 정도로 해독된다. 소위 확인법의 선어말어미¹⁴⁾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종래의 연구에서 ‘고티란디’로 읽혀 왔던 “直體良焉多衣”(〈廣修供養歌〉)도 선어말어미로 간주하여 ‘고티언디’(韓在永 1995:96)나 ‘고티언대’(이용 2000:114)와 같이 읽을 수 있다.

이들 용례에서 볼 때 (22)에서 ‘-어’(감탄법), (23)에서 ‘아/어’(확인법)로 읽음으로써 선어말어미로 쓰인 ‘良’자의 독음을 [아 혹은 [어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2) 吏讀에서의 用法

이두 자료에서도 중세한국어의 선어말어미 ‘-거’에 해당되는 ‘-去’와 그 이형태라고 할 수 있는 ‘-良’이 존재한다. 徐鍾學(1995:120)에 의하면 ‘-去’

14) 고영근(1981/1998:37~44) 참조.

는 非他動詞에 통합되고, ‘-良’은 他動詞에 통합된다고 한다. 이러한 양상은 중세한국어에 보이는 ‘-거-’와 ‘-아/어-’의 분포와 비슷하다.¹⁵⁾

3) 口訣에서의 用法

석독구결 자료에서 ‘ㄱ’이 시상의 선어말어미로 쓰였고 또 그것이 ‘-去-(거)’와의 교체 양상을 보였음은 이두 자료에서와 마찬가지로이다. 그런데 ‘-ㄱ’은 대부분 타동사만 결합하는 데 반해 ‘-去-’는 자동사뿐만 아니라 타동사에도 결합한다(박진호 1998:168). 다음과 같은 예들이 있다.

- (24) 汝₇ (於)過去_七 七佛_十 已_ᄃ 一_二 七_七 義_ᄃ 二_二 七_七 義_ᄃ 乙 問_乙 𣎵
 ₃ 八_二 七_二 𣎵 (구인14:20~22)
- (25) 7. 金剛原₃ 十 登_ᄃ 去_八 二_七 二_二 淨土₃ 十 居_ᄃ 二_三 七_七 一 (구인
 11:06~07)
- L. 是 如_支 去_ᄃ 七_七 義_乙 問_去 去_七 工 (화엄02:11)

(24)에서 ‘-ㄱ’이 타동사와 결합되어 있는데 (25)에서는 ‘-去-’가 자동사, 타동사와 결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의 내용을 정리하면 선어말어미로서 쓰이는 ‘良’자는 [아, 에] 정도의 독음을 가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7. 特殊助詞로서의 用法

1) 鄉歌에서의 用法

특수조사로 간주되는 ‘良’의 용례는 다음 하나밖에 안 보인다.

- (26) 乾_達婆_矣游_鳥隱_城叱_盼良_望良_古 (彗星歌)

대부분의 해독에서 이두의 ‘乙良(으란)’과 대응시켜서 논의하였다. 梁柱東(1965:572)에서 ‘良’을 [란]으로 읽으려고 한 바 있으나 이것은 이두에서의 독

15) ‘-거-’와 ‘-아/어-’의 교체 양상에 대해서는 高永根(1980/1989)를 참조.

법에 너무 이끌린 결과로 보인다. 또 南豐鉉(1977/1999:251)에서는 ‘乙良’의 ‘良’을 [안]으로 읽었으나 ‘良’자의 한자음을 생각할 때, 역시 [량]으로 읽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보인다.¹⁶⁾

2) 吏讀에서의 用法

고려시대 이두자료에서 특수조사로서 가장 많은 용례를 보이는 것이 ‘乙良’일 것이라고 한다(李丞宰 1992:104). ‘乙良’은 주로 대격의 기능을 담당하는 명사에 통합되어 쓰인다.

- (27) 日日以 合夫三百四十八 並以 乙良 第二年春節已只 了兮 <浮兜寺石塔記:5> [徐鍾學 1995:94에서 재인용]

위의 용례는 ‘들은 제2년 봄철까지 마치다’로 해석되므로 ‘乙良’이 목적어에 통합되었다고 볼 수 있다(徐鍾學 1995:94).

‘乙良’은 조선시대 이후의 이두 자료에서 어미처럼 쓰이는 경우가 있다. 동명사 뒤에 ‘乙良’이 통합되는 경우가 그것이다.

- (28) 民戈只 犯爲乙良 杖一百齊 / 民이 犯한 경우에는 곧장 100대를 친다. <直解 15:3b> [韓相仁 1998:75에서 재인용, 律文은 생략]

여기서 ‘爲乙良’은 ‘爲’의 동명사에 ‘乙良’이 통합된 것인데, 동명사어미 ‘隱’이 생략되어 있다. 이러한 용례들은 거의 연결어미 ‘면’에 해당되는 것이며 ‘어간+在(선어말어미)乙良’의 형식으로 굳어진 형태가 어미로 사용되었던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강영 1998:99).

3) 口訣에서의 用法

석독구결에서 중세한국어의 ‘으란’에 해당되는 특수조사는 확인되지 않는

16) 그러나 金完鏞(1980:129)의 지적처럼 중세한국어의 ‘으란’, 그리고 근대한국어의 ‘으랑’을 생각할 때, 향가에서의 어형(‘으랑’)이 오히려 후세의 근대한국어에 가깝게 보인다는 것이 부담이 된다. 앞으로 더 검토될 필요가 있다.

다. 그러나 16세기의 음독구결 자료에서 ‘乙良(으란)’이 나타난다. 다음 용례는 安秉禧(1977:63)에서 가져온 것이다.

(29) 魯從乙良 〈書頭上 21b〉, 會族乙良 〈鄉約 31a〉

이두의 ‘乙良’도 포함하여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독음이다. 安秉禧(1977:100)은 음독자로 보고, “音節末音 n, ŋ가 混同되고 音節 副音 j가 無視된 借字”라고 하였다. 음절말음 n, ŋ의 혼동을 보이는 표기로서 ‘等(든)’이 있으나 이러한 양상에 대해 좀더 자세히 검토해 볼 필요는 있을 것이다.

IV. ‘良’의 讀音에 대하여

여기까지 살펴본 바를 종합하여 ‘良’자의 독음, 특히 향가에서의 독음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먼저 본고에서 검토한 ‘良’의 용법과 독음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0) ‘良’의 용법과 독음

[아, 어]: 부사형어미, 처격조사, 호격조사, 선어말어미

[라]: 종결어미, 말음첨기

[량]: 특수조사

[아]라는 독음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견해가 있다. 향가의 용례는 아니지만 南豐鉉(1981:44)는 『鄉藥救急方』에 나타난 借字表記 “影良汝乙伊”(그리메너홀이)의 ‘良’을 [아]로 읽으면서 訓假字로 처리하였다. 이것은 Ⅲ.5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光州版 『千字文』에 나타난 訓 ‘알’에 근거한 견해이다. 또한 金完鎭(1980:14)와 같이 일정한 규칙에 의하여 ‘라’에서 ‘르’이 탈락한다고 보는 경우도 있다.

[량]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근거가 있는 듯하다. 『三國史記』·『三國遺事』에서 같은 人名이 달리 표기된 용례들 중 다음과 같은 것이 보인다(장세경 1990:19).

(31) 良品 〈史記 9.12b〉 : 狼品 〈遺事 曆1.12b〉

이것은 ‘良(陽韻, [jaŋ])과 ‘狼(唐韻, [aŋ])이 서로 대응관계에 있음을 말한다. 이와 같이 介音 j의 유무와 상관없이 대응을 보이는 것으로 力(職韻, [jək])과 得(德韻, [ək]), 儒(虞韻, [juo])와 弩(姥韻, [uo]) 등이 있어 ‘良’자의 독음로서 [랴]를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良’을 [래]로 읽으려면 음절말음이 무시되고 借字로 사용되는 예를 찾아 보아야 할 것이다. 이것은 開音節 구조를 갖는 일본어의 경우에는 쉽게 찾아낼 수가 있다(예. 君[kul, 聞[mol 등. 李鍾徹 1983의 假字 일람표를 참조). 또 『三國史記』·『三國遺事』에서의 복수 인명표기를 보면 -k, -n, -l, -ŋ와 같은 음절말 자음이 -∅와 대응되는 경우가 있다(장세경 1990:83).

(32) ㄱ. 首露王 或云 首陵 〈遺事 2.38b〉
 ㄴ. 鷹廉 一作 疑廉 〈史記 11.6a〉

(32ㄱ)은 ‘露’와 ‘陵’의 대응을, (32ㄴ)은 ‘鷹’과 ‘疑’의 대응을 보인다. 이러한 현상으로 볼 때, ‘良’자를 [래]로 읽을 수는 있는 듯하다. 일본 『萬葉集』에서도 ‘良’을 [ral로 읽는데 그 원인도 살펴보면 有用하겠지만 여기서는 자세히 논의하지 않겠다.

또한 선어말어미로 쓰이는 경우의 [어]와 같은 독음은 [어]에서 비롯한 것으로 생각된다. [아, 에 자체는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李崇寧(1955/1982: 162~163)에서 相關束으로 대립되는 모음 간에 融通이 허용된다고 하여 ‘良’의 독음을 [랴~령], [래~레]로 해석한 바가 있다. 이것이 그 유통의 최대한계라고 하였는데 더 이상의 유통을 허용한다면 표기문자적 가치를 잃게 된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대립되는 모음 사이의 교체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독음의 유통은 생각을 안 해도 될 것이다. 독음으로서 [래], [랴]만 설정하면 환경에 따라 자동적으로 [레], [령]으로 읽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여기에 독음 [어]를 추가하여도 큰 문제는 안 될 것이다. [아-어]의 교체도 환경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특히 부사형어미와 같은 경우).

해석이 문제가 되는 용례¹⁷⁾를 제외하고 본고에서 정리한 바에 따르면 ‘良’

의 독음으로서는 [아-어, 라, 랑] 정도만을 설정할 수가 있는 듯하다. 위에서 검토한 대립 모음 간의 유통은 [아-에]의 경우에만 적용하면 될 것이다.

V. 結 論

본고에서는 차자표기 자료에 나타난 '良'의 용법을 그 독법과 함께 정리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향가에서의 용법을 바탕으로 각 자료를 검토하였는데 대부분의 용법들이 각 자료에 공통되어 나타난다. 부분적으로는 일치하지 않은 용법들도 있었으나(예. 종결어미, 특수조사 등), 거의 평행적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또한 그 독음은 [아-어, 라, 랑]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향가 자료에서는 각 연구자마다 다양하게 읽혀 왔는데 본고에서는 되도록 그 체계를 간결하게 하려고 하였다.

본고에서는 향가의 용법을 기준으로 살펴보았기 때문에 이두, 구결 자료에 대한 검토가 소홀해진 감이 없지 않다. 특히 이두, 구결 자료의 年代를 특정하지 않고 조선시대 자료까지 포함시켰다. 후대에 발달된 용법도 있을 터이니 좀더 섬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17) '此良'을 '이령'으로 읽는 경우가 그것이다(Ⅲ.1.1절 용례4를 참조). 또한 본고에서는 다루지 않았으나 의도를 나타내는 '려'의 용례(功德修叱如良來如 <風謠>)에 대해서는 15세기 한국어에서 "나라해 빌머그라 오시니"(〈월석 01:05〉)가 있어 향가에서의 독음을 [래]로 보아도 문제는 없을 것이다.

參考論著

- 강영(1998), 『『大明律直解』吏讀의 語末語尾 研究』, 서울: 國學資料院.
- 高永根(1980/1989), 動詞 標識 '거/어'의 交替樣相, 『國語形態論研究(增補版)』,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443~491.
- 고영근(1981/1998), 『중세국어의 사상과 서법(보정판)』, 서울: 탑출판사.
- 김승곤(1984), 한국어 이두의 처소격조사 [良中]의 어원연구, 『두메 박 지홍 스승 회갑 기념 논문집』, 부산: 문성출판사, 27~48.
- 金完鎭(1980), 『鄉歌解讀法研究』,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南豊鉉(1977/1999), 國語 處格助詞의 發達, 『國語史를 위한 口訣 研究』, 서울: 태학사, 241~269.
- 南豊鉉(1981), 『借字表記法研究』, 서울: 檀大出版部.
- 南豊鉉(1986/2000), 吏讀·鄉札表記의 原理와 實際, 『吏讀研究』, 서울: 태학사, 11~29.
- 南豊鉉(2003), 古代國語의 時代 區分, 『口訣研究』第11輯, 서울: 口訣學會, 1~22.
- 朴盛鍾(1996), 『朝鮮初期 吏讀 資料와 그 國語學的 研究』,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 박진호(1998), 고대 국어 문법,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3: 고대 국어』, 서울: 국립국어연구원, 121~205.
- 徐在克(1975), 『新羅 鄉歌의 語彙 研究』, 대구: 啓明大學校出版部.
- 徐鍾學(1995), 『吏讀의 歷史的 研究』, 경북: 영남대학교 출판부.
- 宋基中(2004), 『古代國語 語彙 表記 漢字의 字別 用例 研究』,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시부[志部昭平](1990), 『諺解 三綱行實圖研究』, 東京: 汲古書院.
- 安秉禧(1977), 『中世國語口訣의 研究』, 서울: 一志社.
- 梁柱東(1965), 『增訂 古歌研究』, 서울: 一潮閣.
- 오구리[小倉進平](1929), 『鄉歌及び吏讀の研究』(京城帝國大學法文學部紀要 第一), 京城: 京城帝國大學.
- 俞昌均(1994), 『鄉歌批解』, 서울: 螢雪出版社.
- 李基文(1972/1998), 『新訂版 國語史概說』, 서울: 태학사.
- 李崇寧(1955/1982), 『新羅時代의 表記體系에 관한 試論』, 서울: 塔出版社.
- 李丞宰(1992), 『高麗時代의 吏讀』, 서울: 太學社.

- 이승재(1998), 고대 국어 형태,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3: 고대 국어』, 서울: 국립국어연구원, 41~75.
- 이용(2000), 廣修供養歌 ‘良焉多衣’의 형태론적 고찰, 『형태론』2권1호, 서울: 박이정, 107~119.
- 李鍾徹(1983), 『鄉歌와 萬葉集歌의 表記法 比較 研究』, 서울: 集文堂.
- 장세경(1990), 『고대 차자 복수인명 표기 연구』, 서울: 國學資料院.
- 中樞院(1937), 『吏讀集成』(國書刊行會에서 1975년에 影印).
- 韓相仁(1998), 『朝鮮初期 吏讀의 國語學的 研究』, 서울: 보고사.
- 韓相花(1994), 『祇林寺本 『楞嚴經』口訣의 研究』, 聖心女子大學校大學院 國語國文學科 碩士學位論文.
- 韓在永(1995), 鄉歌 ‘良’字 小考, 『國語史와 借字表記』, 서울: 대학사, 85~99.
- 홍종선(1997), 근대 국어 문법,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2: 근대 국어』, 서울: 국립국어연구원, 143~190.
- 후지모토[藤本幸夫](1986), [中]字攷, 『論集 日本語研究(二) 歴史編』, 東京: 明治書院, 386~420.